

한라반 학습 계획

일시 : 2018년 5월 12일

교사 : 김은아

- 목표 : 1. 글을 읽고 주장과 근거 파악할 수 있다.
2. 문법(부사, 존대말, 철자)문제를 풀 수 있다.

교재 :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6-1, 초등 국어 6학년, 100대 민족문화 상징자료,

교시	수업내용
1교시 9:30-10:10	숙제 검사 및 쪽지시험
2교시 10:10-11:10	<신약 개발을 위한 동물 실험>, <누구를 위한 동물 실험인가> 글을 읽고 주장과 근거 파악하기
점심 11:10-11:35	
3교시 11:35-12:40	사물놀이 SAT 문법 문제 풀기

숙제

1. 8급한자 쓰고 문제 풀기
2. 관용어 읽고 문제 풀기
3. 읽기 자료 읽어오기
4. 어휘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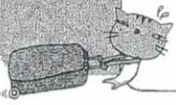
<봄학기 행사일정 >

5월 19일 : 우리말 평가 준비 자료 배부
6월 2일, 9일 : 우리말 평가
6월 16일 : 봄학기 종강식

동물실험 <공부할 어휘>

- 신약 : 새로 개발한 약, new drug, new medicine
- 부작용 : 어떤 일에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바람직하지 못한 일. side effect
- 긍정적인 : positive
- 부정적인 : negative
- 보급 : 널리 퍼서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미치게 하여 누리게 함. spread, supply
- 검증 : 거스 · 거사하여 증명함 verification

- 소아마비 : polio
- 결핵 : tuberculosis(TB)
- 풍진 : rubella, German measles
- 홍역 : measles
- 치명적인 : 생명을 위협하는. 또는 그런 것. fatal, mortal, deadly, lethal
- 예방 : 질병이나 재해 따위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처하여 막는 일. prevention
- 허용 : 허락하여 너그럽게 받아들임. permission
- 위협 : 힘으로 으르고 협박함. threat
- 대처 : 어떤 정세나 사건에 대하여 알맞은 조치를 취함. handle, cope with, deal with, manage, treat, react
- 명목 : 겉으로 내세우는 이름. pretext, cause
- 생체 실험 : a medical experiment on a living body
- 마구잡이로 : indiscriminately, at random
- 우주 탐사 : 우주선이나 인공위성에서 행성의 표면을 탐사하는 일. space exploration
- 탑승 : 배나 비행기, 차 따위에 올라탐. boarding
- 판명되다 : 어떤 사실이 판단되어 명백하게 밝혀지다. be revealed, be proved
- 가속도 : 일의 진행에 따라 점점 더해지는 속도. 또는 그렇게 변하는 속도. acceleration



대화



- 에릭: 며칠 후면 추석인데 지영 씨도 고향에 가요?
 지영: 네, 그런데 벌써부터 가슴이 답답해요. 어휴.
 에릭: 왜 한숨을 쉬어요? 가족과 친척들이 모이면 즐겁고 좋지 않아요?
 지영: 즐겁고 좋기는 하지만 명절 때마다 친척들이 제게 언제 국수 먹게 해 주느냐고 묻거든요. 올해도 그 말을 들을까 봐 걱정이에요.
 에릭: 지영 씨 국수 만드는 솜씨가 좋은가 봐요.
 지영: 네? 그게 아니에요. 국수를 먹는다는 말은 결혼을 한다는 뜻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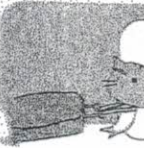
※ 국수(를) 먹다: 다른 사람이 결혼해서 대접을 받다

활용예문

- ※ 누나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은 언제 국수를 먹게 해 줄 거냐는 말이다.
 ※ 두 분 정말 잘 어울려요. 올해는 국수 먹게 해 줄 거예요?
 ※ 가: 어제 남자 친구한테서 청혼을 받았어요.
 나: 그럼 이제 국수 먹게 되는 거예요?

새 어휘와 문형

- 추석 □ 답답하다 □ 한숨(을) 쉬다 □ 친척 □ 명절 □ 국수
 □ 솜씨 □ 어울리다 □ 청혼(을) 받다 □ -냐고 묻다



여러

- ① 어
- ② 언
- ③ 어
- ④ 어
- ⑤ 신

여러

지

이

한 걸

날(을

시집(

장가(



함께해요



여러분의 멋진 결혼식을 상상해 보세요.

- ❶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어요?
- ❷ 언제쯤 결혼을 하고 싶어요?
- ❸ 어디에서 결혼식을 하고 싶어요?
- ❹ 어떻게 결혼식을 하고 싶어요?
- ❺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고 싶어요?



여러분의 청첩장을 만들어 보세요.

♡ 모시는 말씀 ♡

저희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일시 : _____
- 장소 : _____
- 약도



한 걸음 더

- ※ 날(을) 잡아(ㄸ) 날짜를 정하다
이번 여름에는 날 잡아서 제주도에 가는 게 어때요?
- ※ 시집(을) 가다(ㄸ) 여자가 결혼하다
이모는 시집갈 나이가 되었는데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 ※ 장가(를) 가다(ㄸ) 남자가 결혼하다
남자들은 예쁘고 마음씨 착한 여자한테 장가가고 싶어한다.

예요, 저도
고 싶은 마음은
똑같아요.

않아요?
수 먹게 해주

뜻이에요.

대화

동생이 잘되는
것을 배 아파한
놀부는 어떻게
되었어요?



한국 도깨비에게
벌을 받았어요..

마리오: 아사코 씨, '홍부와 놀부'라는 옛날이야기 알아요?

아사코: 욕심 많은 형 놀부와 마음씨 착한 동생 홍부의 이야기 맞지요?

마리오: 네, 박에서 도깨비가 나오는 부분이 아주 재미있었어요.

아사코: 도깨비가 나와요? 오래 전에 읽어서 기억이 잘 안 나요.

마리오: 도깨비가 욕심 많은 형에게 벌을 주잖아요.

아사코: 아! 이제 생각났어요. 놀부는 동생이 부자가 된 것을 배 아파했지요?
그래서 일부러 제비의 다리를 부러뜨렸고요.

마리오: 맞아요. 사실은 저도 아사코 씨가 한국어 시험에서 100점을 받을 때마다 배가 아팠어요.

아사코: 하하하, 그랬어요? 마리오 씨, 도깨비를 만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배(가) 아프다: 남이 잘되는 것에 질투가 나다

활용예문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그 남자를 보니 배가 아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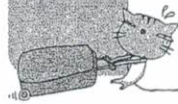
한국 속담에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다.

가: 옆집 사람이 복권에 당첨됐다고 해요.

나: 정말이에요? 축하할 일이지만 솔직히 배가 좀 아픈데요.

새 어휘만 문장

□ 욕심 □ 마음씨 □ 박 □ 도깨비 □ 부분 □ 벌 □ 배 □ 일부러
□ 제비 □ 부러뜨리다 □ 속담 □ 복권 □ 당첨되다 □ 솔직히 □ -도록



함께해요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의 그림을 보고 친구와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착한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쇠도끼를 물에 빠뜨립니다. 하지만 나무꾼의 정직한 행동으로 금도끼와 은도끼, 쇠도끼를 모두 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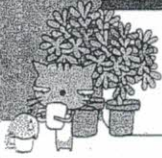


한편 나무 뒤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며 배 아파하던 나쁜 나무꾼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이 다음 이야기를 상상해 보세요.

한 걸음 더

- ※ 배꼽(을) 잡다(으) 너무 우스워서 배를 잡고 웃다
어제 본 영화는 너무 재미있어서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 ※ 배(가) 부르다(으) ①아쉬울 것이 없다 ②임신하다
먹을 것이 없어 굶는 아이들도 있는데 음식을 버리다니 배가 많이 불렀구나.
- ※ 배ㄹ
 - 배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 '나주 배'가 맛있기로 유명해요.
 - 살이 찌서 몸무게가 두 배나 늘었어요.

15 국수(를) 먹다 16 배(가) 아프다



연습해요



보기의 관용어를 넣어서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보기

국수를 먹다

날을 잡다

배가 아프다

배꼽을 잡다

1 가: 어제 그 코미디 프로그램 봤어?

나: 응. 너무 재미있어서 _____고 웃었어요.

2 가: 왜 그렇게 늦게 _____?

나: 결혼을 많이 하는 달이라서 결혼식장을 빌릴 수가 없었어요.

3 가: 승우 씨가 이번에 대기업에 취직했다지요?

나: 네, 나보다 학점도 좋지 않은데 정말 _____.

4 가: 언제까지 연애만 하실 거예요?

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올해 안에 _____.

5 가: 친구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가끔 _____ 때가 있어요.

나: 맞아요. 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6 가: 언제쯤 _____?

나: 저도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좋은 사람이 없네요.



여러분이 대화문을 만들어 보세요.

가: _____

나: _____

의 정직한 행동으로



일이 일어났을

배가 많이 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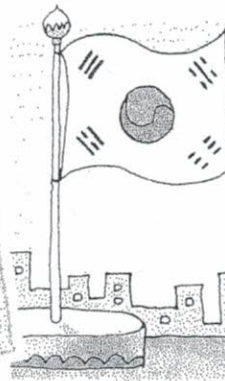


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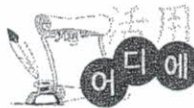
큰 대

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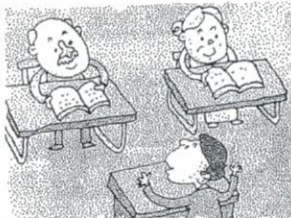
나라 이름 한



대한 사람
대한 요요



어디에 쓰일까요?



할아버지는 노인 大學(대학)에 다니십니다.



韓복은 우리 나라 고유의 옷입니다.

생각은 통통!
한자는 쓱쓱!



간단하게 줄여서 쓰기도 해요!

★ 모양이 복잡한 한자는 쉽게 간단히 줄여서 쓰기도 합니다.

國

나라 국

国

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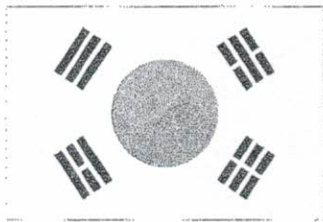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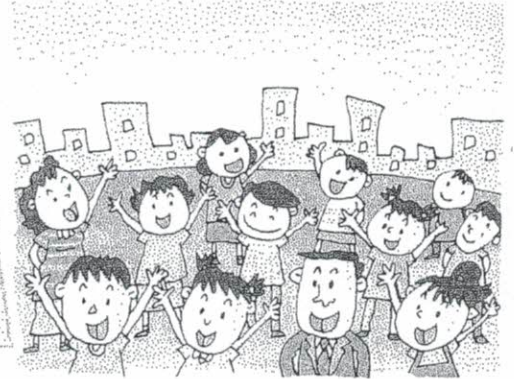
배울 학

学

萬

일만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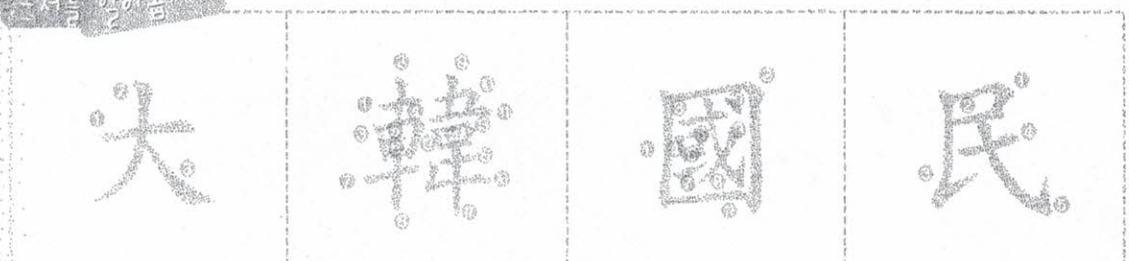
万



태극기는 우리 나라의 기입니다.



만 18세가 되면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풍물에는 어떤 악기가 사용될까?

풍물 굿(농악)



“개갱개갱 쿵덕쿵덕 쿵
쿵쿵, 징~~~”

옛날 농촌에서는 일을
하다 쉬 때면 신명나는 놀
이마당이 펼쳐졌어요. 울
긋불긋한 옷을 차려 입고
악기를 치면서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었지요. 이것

이 바로 풍물놀이예요.

풍물놀이는 주로 모내기, 김매기, 추수 등 농사일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와 연주였기 때문에 ‘농악’이라고도 해요. 하지만 농악이 꼭 농
사일에만 쓰인 건 아니예요. 비가 내리기를 기원하는 기우제나 신에
게 소망을 빌 때 벌이는 음악도 농악이라고 했지요.

농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을 농악대라고 하는데, 농악대는 기를 드
는 ‘기수’와 악기를 연주하는 ‘재비’, 그리고 탈을 쓰고 춤을 추는 ‘잡
색’으로 구성돼요.

농악이 시작되는 곳에는 우선 커다란 기를 세워요. 이를 ‘농기’라
고 하는데 기의 가장자리에는 지그재그로 잘린 모양의 형견이 너슬너



슬하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기에는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문구를 써 넣지요. '농자천하지대본'이란 '농사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농악대는 보통 쟁과리, 징, 장구, 북, 소고 순으로 늘어서서 연주를 하는데, '더그레'라고 하는 조선 시대의 옷을 입고 색 띠를 둘러요. 또 농악 전체를 지휘하는 사람을 '상쇠'라고 하고, 상쇠는 백로나 오리털이 달린 병거지 모자를 쓰고 있어요. 나머지 농악대원들은 고깔이나 형겅으로 만든 긴 채가 달린 모자를 쓰지요.

풍물은 주로 타악기를 사용하여 강한 리듬으로 흥을 돋워요. 옆에서 말을 해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시끄럽고 흥이 나지요. 이 때문에 풍물놀이를 구경하는 이도 그냥 앉아 있지 못하고 함께 어울리게 되지요. 풍물놀이는 현재 큰 행사에서 흥을 돋우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요. 월드컵이나 올림픽 등의 국제 행사에도 우리의 풍물놀이는 절대 빠지지 않고 등장한답니다.

▼ 풍물놀이는 주로 모내기, 김매기, 추수 등 농사일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와 연주다.



탈춤은 언제부터 추기 시작했을까?

탈춤



얼굴에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한 탈을 쓴 채 덩실덩실 춤을 추는 탈춤을 본 적이 있지요? 탈춤을 보고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어깨를 들썩거리게 돼요.

탈춤은 아주 먼 원시 시대부터 있었다고 해요. 사람들은 탈을 쓰고 춤을 추면서 사냥이 잘 되게 해 달라고 빌거나 풍년을 기원했대요. 또 가뭄이나 홍수를 이겨 내고 질병을 일으킨다고 믿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탈을 쓰고 탈춤을 추기도 했어요. 이처럼 탈춤은 원래 종교 의식의 일부였

지요.

그러던 것이 고려 시대부터 차차 놀이의 성격을 띠기 시작했어요. 조선 시대에는 본격적으로 백성들과 함께 즐기는 신명나는 놀이가 됐지요. 힘 없는 백성들은 탈춤을 추면서 자신들을 괴롭히는 탐관오리를 비판하거나, 양반의 행동을 과장되게 흉내 내어 서민들에





게 재미를 주었어요.

탈춤이 예로부터 우리 민족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따로 무대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넓은 공터나 장터 등에서 언제든지 공연을 벌였기 때문에 탈춤을 추는 광대와 관객이 쉽게 어울릴 수 있었지요. 하지만 탈춤이라고 해서 춤만 추는 건 아니고 노래도 함께 불렀어요. 오늘날의 뮤지컬이나 오페라와 비슷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다만 탈을 쓰고 한다는 것이 다르지요.

탈춤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른 이름으로 불렸어요. 놀이 방식도 달랐지요. 서울 송파와 양주 지역에서는 '산대놀이'가, 영남 지역에서는 '오광대놀이'가, 황해도 봉산에서는 '봉산탈춤'이 유명했어요.

봉산 탈춤은 봉산 지방에 내려오는 탈춤으로 단옷날이나 사신을 대접할 때 주로 추었다고 해요. 다른 탈춤보다 말장난이나 야유가 심한 봉산 탈춤은 사자, 말뚝이, 취발이, 양반 등의 인물이 등장해서 타락한 승려나 어리석은 양반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현재 봉산 탈춤은 중요 무형 문화재 제 17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탈춤은 언제 어디서든지 공연할 수 있어 광대와 관객이 쉽게 어울릴 수 있다.

2018년 05월 12일

한라반 쪽지시험

이름 :

▶ 문장을 읽고 아래의 단어들을 이용해 문장을 만드세요.

맹인, 시각 장애인, 보행, 기구, 시력을 잃다, 점자, 불평등, 권익 신장, 현금 지급기, 응시

1. ()도 ()문자를 보급해서 맹인도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바뀌었으면 좋겠다.
2. 축구공에 세계 맞아 ()을 잃고 (/)이 되었다.
3. 어머니가 충격을 받아 뇌졸중으로 돌아가셨다.
4. 우리는 아직 남녀 간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였다.
5. 그 사람은 재미교포의 ()에 크게 기여했다.
6. 공사 관계로 ()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7. 이번 시험에는 모든 사람에게 ()의 기회를 줄 예정이다.
8. 세계 여러 나라들은 이러한 국제()를 통해서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

▶ 아래 문장에 쓰인 한자를 읽어보세요.

우리 학교의 校木은 은행나무 입니다.

제주도에 있는 남한에서 가장 높은 山은 한라山이에요.

임금님이 쓰시던 金冠입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대대손손 내려온 土地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월화수목금토일'을 한자로 써보세요. (月金木日火水土)

▶ 다음 문제를 읽고 답하세요.

1. 고려청자의 색깔은?
2. 고려 청자는 어떤 사건을 계기로 쇠퇴하였나요?
3. 고려청자의 특징 중 도자기 표면을 일일이 깎아내고 흙을 메워 문양을 만드는 기법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4. 고려 청자에서 주로 볼 수 있는 문양은 주로 무엇인가요?
5. 조선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도자기는 무엇인가요?
6. 조선의 도자기는 어느 나라의 영향을 받았나요?
7. 우리의 도자기 기술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일본은 이 전쟁이 일어나자 우리나라 도공들을 자신들의 나라로 끌고 갔어요.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인가요?



연습해요

골뚝갈을까요?



보기의 관용어를 넣어서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보기

골치가 아프다

골치덩어리

골뚝갈다

1 가: 이번 휴가에 제주도로 여행 가는 게 어때요?

나: 가고 싶은 마음은 _____지만 할 일이 많아서 못 가요.

2 가: 요즘 신문에는 _____기사가 너무 많아요.

나: 맞아요. 신문을 볼 때마다 답답해요.

3 가: 개가 너무 시끄럽게 짖네요.

나: 저 개는 우리 동네 _____지만 집을 잘 지켜요.

4 가: 연말에 일이 많아서 _____.

나: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5 가: 오늘도 부장님께 혼났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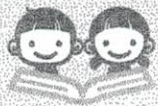
나: 네, 일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은 _____지만 가족들을
생각해야겠지요.



여러분이 대화문을 만들어 보세요.

가: _____

나: _____



주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여 봅시다.

1 동물 실험에 대하여 생각하며 글 ㉠과 글 ㉡를 비교하며 읽어 봅시다.

신약 개발을 위한 동물 실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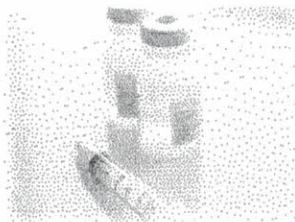
동물 실험이란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동물을 대상으로 행하는 실험을 말한다. 동물 실험을 거쳐 이루어지는 신약 개발은 국가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명과도 직접 관련된다.

그렇다면 신약 개발을 위한 동물 실험은 왜 필요할까?

첫째, 신약을 개발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하여 연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롭게 개발된 약은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부정적인 효과, 즉 부작용도 있다. 따라서, 새로 개발한 약을 질병 치료 약으로 보급하기 위해서는 그 약이 사람에게 해롭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실험이 필요하다. 이때 사람에게 직접 실험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거나 심지어는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안전하게 약을 섭취할 수 있게 된다.

둘째, 동물 실험을 통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법을 개발하여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 진행된 여러 동물 실험이 있었기에 과학자들은 다양한 질병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치료법을 발견하여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동물 실험을 통하여 소아마비, 결핵, 풍진, 홍역 등 치명적인 질병들을 예방하는 백신이 개발되었다.

만약 최소한의 범위에서조차 동물 실험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의학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또, 다가오는 질병의 위협에 대처하지 못할 수도 있다. 동물 보호를 명목으로 동물 실험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질병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잃는 일이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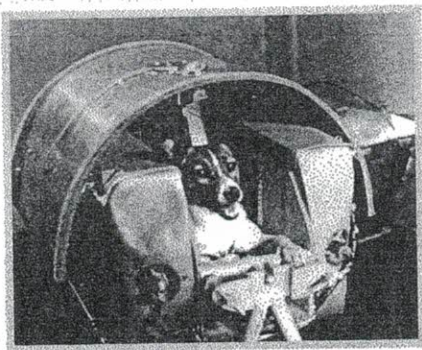


누구를 위한 동물 실험인가

우주 개발을 위한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 동물 보호 단체에서는 사람들이 우주 개발을 위하여 동물에게 마구잡이로 생체 실험을 한다고 비판한다. 우주 개발을 위하여 새끼를 뺏 동물들을 우주로 보내거나, 위험한 우주 광선에 일부러 동물들을 노출시키는 등 사람들에게는 행할 수 없는 우주 실험을 동물에게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우주 탐사를 위하여 스푸트니크 2호에 탑승하였던 개인 라이카의 경우를 생각하여 볼 수 있다. 당시 언론은 라이카가 일주일 동안 우주 공간에서 생존하다가 미리 설치한 장치로 약물이 주입되어 고통 없이 생을 마쳤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발표는 몇십 년이 지난 뒤 새롭게 공개된 뜻밖의 자료에 의하여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사실 라이카는 우주선의 가속도와 뜨거운 열을 견디지 못하고 고통과 공포 속에서 버티다가 결국 몇 시간 만에 죽고 말았다는 것이다. 특히, 우주선에 실려 우주로 간 동물들이 우주 공간에서 머무르다가 무사히 지구로 돌아온다고 하여도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결국 숨진다고 한다. 동물의 목숨이 사람보다 가볍다고만은 할 수 없음에도 동물의 죽음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동물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주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동물을 대상으로 한 생체 실험으로 이루어져도 그 결과가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사람과 동물은 신체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주 개발이나 과학 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죄 없는 동물들이 생체 실험의 대상으로 죽어 가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스푸트니크 2호에 탑승한 라이카의 모습

2 글 11와 글 12를 읽고 물음에 답하여 봅시다.

(1) 글 11의 주장과 근거를 정리하여 봅시다.

● 주장:

● 근거:

(2) 글 12의 주장과 근거를 정리하여 봅시다.

● 주장:

● 근거:

3 글 13의 근거와 글 14의 근거가 주장을 각각 어떻게 뒷받침하고 있는지 써 봅시다.

글 13의
근거

과거에 진행된 여러 동물 실험이 있었기에 과학자들은 다양한 질병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치료법을 발견하여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동물 실험을 통하여 소아마비, 결핵, 풍진, 홍역 등 치명적인 질병들을 예방하는 백신이 개발되었다.

글 14의
근거

당시 언론은 라이카가 일주일 동안 우주 공간에서 생존하다가 미리 설치한 장치로 약물이 주입되어 고통 없이 생을 마쳤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발표는 몇 십 년이 지난 뒤 새롭게 공개된 뜻밖의 자료에 의하여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사실 라이카는 우주선의 가속도와 뜨거운 열을 견디지 못하고 고통과 공포 속에서 버티다가 결국 몇 시간 만에 죽고 말았다는 것이다.

4 '동물 실험은 필요한가'에 대하여 토론해 봅시다.

토론 주제

동물 실험은 필요한가

(1) 토론 주제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정하여 봅시다.

주장

(2)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절한 근거를 마련하여 봅시다.

근거

주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면
근거가 믿을 만한지, 사실인지,
정확한지 생각해야 해요.



(3) 자신과 다른 주장을 펼치는 상대의 근거는 무엇일지 예상하여 써 봅시다.

☞

☞

☞

부사 Adverb

43. 여자 친구한테 이메일을 받더니 기분이 _____ 좋은 것 같아요.

- (A) 아주
- (B) 전혀
- (C) 그다지
- (D) 별로

2010년도 문항번호 (48) / 난이도 하 (94%)

44. _____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 (A) 혹시
- (B) 마침
- (C) 아무리
- (D) 도저히

2012년도 문항번호 (#28) / 난이도 하 (91%)

45. _____ 아빠도 엄마한테 꼭 전화해.

- (A) 재빨리
- (B) 어떻게
- (C) 아무리
- (D) 도저히

2013년도 문항번호 (#53) / 난이도 하 (90%)

46. 숙제는 받는 날 _____ 시작하는 것이 좋다.

- (A) 점점
- (B) 바로
- (C) 결코
- (D) 여간

2013년도 문항번호 (#30) / 난이도 중 (89%)

47. 저 아이가 키가 작아도 나보다 _____ 빨라요.

- (A) 훨씬
- (B) 크게
- (C) 적게
- (D) 결코

2011년도 문항번호 (#44) / 난이도 중 (89%)

48. 이 드라마보다 _____ 다른 것을 보는 것이 낫겠어.

- (A) 차라리
- (B) 아무리
- (C) 도대체
- (D) 게다가

2014년도 문항번호 (#37) / 난이도 중 (86%)

49. 오늘은 날씨가 맑아요. _____ 우산을 가지고 왔나 봐요.

- (A) 괜히
- (B) 함께
- (C) 당연히
- (D) 조용히

2012년도 문항번호 (#38) / 난이도 중 (84%)

50. 아직까지 오지 않는 걸 보니까 _____ 차가 막히나 봐요.

- (A) 곧
- (B) 아마
- (C) 훨씬
- (D) 오히려

2014년도 문항번호 (#29) / 난이도 중 (83%)

51.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때 일은 _____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 (A) 전혀
- (B) 겨우
- (C) 만일
- (D) 비록

2009년도 문항번호 (#44) / 난이도 중 (82%)

52. 잠에서 깨어 TV를 틀었는데 _____ 영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 (A) 괜히
- (B) 무척
- (C) 아직
- (D) 마침

2011년도 문항번호 (#46) / 난이도 중 (73%)

존댓말

Honorific word

113. 할아버지께서 간밤에 잘 _____.

- (A) 자셨어요
- (B) 쉬셨어요
- (C) 주무셨어요
- (D) 잤어요

2009년도 문항번호 (#33) / 난이도 중 (69%)

114. 우리 할머니의 _____ 이/가 예순 일곱이세요.

- (A) 나이
- (B) 존함
- (C) 이름
- (D) 연세

2012년도 문항번호 (#56) / 난이도 중 (76%)

115. 이번 공연에 부모님을 꼭 _____ 가고 싶어요.

- (A) 데리고
- (B) 가지고
- (C) 모시고
- (D) 남기고

2012년도 문항번호 (#45) / 난이도 중 (71%)

116. 그 물건은 아버지께 먼저 _____ 보고 친구한테 _____ 것이 좋을 것 같다.

- (A) 물어, 주는
- (B) 말해, 드리는
- (C) 말씀드려, 주는
- (D) 여쭙어, 드리는

2013년도 문항번호 (#50) / 난이도 중 (70%)

117. 어머니께서 텔레비전을 _____ 전에 숙제를 먼저 끝내라고 _____.

- (A) 보시기, 하셨어요
- (B) 보기, 하셨어요
- (C) 보기, 할래요
- (D) 보시기, 했어요

2014년도 문항번호 (#44) / 난이도 심 (69%)

118. 선생님께서 너를 ____고 ____다.

- (A) 오시라 / 한
- (B) 오라 / 한
- (C) 오시라 / 하신
- (D) 오라 / 하신

2009년도 문항번호 (#32) / 난이도 상 (65%)

119. 할아버지, 저희 ____으로 ____ 드시러 한 번 오세요.

- (A) 집, 밥
- (B) 덕, 밥
- (C) 집, 진지
- (D) 덕, 진지

2011년도 문항번호 (#40) / 난이도 상 (62%)

정답: ~~114~~ 115 ~~116~~ 117 ~~118~~ 119

알맞는 말/철자

Appropriate Word / Spelling

129. 나는 키가 _____ 농구를 하기가 힘들어요.

- (A) 적어서
- (B) 작아서
- (C) 짧아서
- (D) 좁아서

2014년도 문항번호 (#39) / 알맞는 말 난이도 중 (86%)

130. 김 선생님, 많이 차리셨네요. 음식의 양이 열 명이 먹고도 _____ 것 같아요.

- (A) 적을
- (B) 작을
- (C) 남을
- (D) 넘을

2014년도 문항번호 (#45) / 알맞는 말 난이도 중 (86%)

131. 친구에게서 전화가 와서 밥을 먹다가 _____.

- (A) 했어요
- (B) 말았어요
- (C) 말랐어요
- (D) 싶었어요

2014년도 문항번호 (#53) / 알맞는 말 난이도 중 (83%)

132. 키가 _____ 꽃들은 앞 줄에 심어라.

- (A) 작은
- (B) 적은
- (C) 좁은
- (D) 넓은

2009년도 문항번호 (#56) / 알맞는 말 난이도 중 (81%)

133. 그때 한국에 가지 않았다면, 난 벌써 한국어 공부를 _____ 모른다.

- (A) 그만둘 줄
- (B) 그만두었듯이
- (C) 그만두었을지도
- (D) 그만두었더라면

2011년도 문항번호 (#52) / 알맞는 말 난이도 중 (80%)

134. 많은 쓰레기는 _____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

- (A) 자세한
- (B) 괜찮은
- (C) 심각한
- (D) 정확한

2009년도 문항번호 (#47) / 알맞는 말 낱어도 중 (79%)

135. 학생은 언제나 _____ 모습을 보여야 한다.

- (A) 학생답지
- (B) 학생다와
- (C) 학생답고
- (D) 학생다운

2014년도 문항번호 (#31) / 알맞는 말 낱어도 중 (78%)

136. 아빠와 전화를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_____.

- (A) 끊었습니다
- (B) 끊겼습니다
- (C) 끝었습니다
- (D) 끝렸습니다

2013년도 문항번호 (#45) / 철자 낱어도 중 (76%)

137. 어제 학교에서 시계를 _____.

- (A) 잊을 것이다
- (B) 잃을 것이다
- (C) 잊어버렸다
- (D) 잃어버렸다

2009년도 문항번호 (#34) / 철자 낱어도 중 (75%)

138. 아버지께서 사 주신 지갑을 그만 _____ 맡았습니다.

- (A) 잊어버리고
- (B) 잃어버리고
- (C) 이져버리고
- (D) 이러버리고

2010년도 문항번호 (#45) / 철자 낱어도 중 (71%)

139. 문이 갑자기 _____ 바람에 다리를 _____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 (A) 닫히는 / 다쳐서
- (B) 닫히는 / 닫혀서
- (C) 다치는 / 다쳐서
- (D) 다치는 / 닫혀서

2009년도 문항번호 (#29) / 철자 난이도 상 (69%)

140. 나는 철수의 말이 _____ 고 생각해.

- (A) 많다
- (B) 맞다
- (C) 맛다
- (D) 맑다

2011년도 문항번호 (#37) / 철자 난이도 상 (67%)

141. 학생들을 잘 _____ 선생님은 존경을 받는다.

- (A) 가리키는
- (B) 가르키는
- (C) 가르치는
- (D) 가리치는

2009년도 문항번호 (#30) / 철자 난이도 상 (64%)

142. 작년에는 학교에 여학생들이 더 _____, 올해는 남학생들이 더 _____.

- (A) 작지만, 작아요
- (B) 적지만, 적어요
- (C) 적었지만, 적어요
- (D) 작았지만, 작아요

2010년도 문항번호 (#38) / 알맞는 말 난이도 상 (63%)

143. 이 학교를 다시 _____ 10년이 걸렸어요.

- (A) 짚은데
- (B) 짚는데
- (C) 짓는데
- (D) 진한데

2012년도 문항번호 (#35) / 철자 난이도 상 (61%)

144. 제니야, 감기가 빨리 _____ 바랍다.

- (A) 낚기를
- (B) 낮기를
- (C) 낯기를
- (D) 낭기를

2013년도 문항번호 (#37) / 철자 난이도 상 (60%)

145. 어젯밤에 옆집의 개가 얼마나 _____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 (A) 젓는지
- (B) 짓는지
- (C) 질던지
- (D) 짓던지

2014년도 문항번호 (#51) / 철자 난이도 상 (58%)

146. 말을 하는 사람이 _____ 표현을 하게 되면 듣는 사람이 _____ 하기 쉽다.

- (A) 모호한 / 이해
- (B) 부정확한 / 납득
- (C) 애매한 / 오해
- (D) 정확한 / 질문

2009년도 문항번호 (#51) / 말맞는 말 난이도 상 (46%)